



주 빈 국 주 인 은 출 판 계... 출 판 인 들 하나 되는 계 기 로 만 들 자

조직위를 비롯, 주빈국행사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 이하 출협), 그리고 국내 언론들은 '프리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출협의 한국관은 예년에 비해 규모를 늘려 한국의 대표 시인 10인의 시를 영어로 번역해 전시하는 한국 명시전을 비롯해 한국출판문화역사전, 책을 통해 본 한국문화전, 북아트 작품 전시코너, 전자출판코너 등을 마련했다. '주빈국 행사' 조직위는 "한국이 오고 있다 korea is coming"이라는 제목의 홍보관에 길이 22미터, 폭 2미터 규모의 '직지심경' 조각물을 설치해 다른 어떤 해보다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국내 출판계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참가한 이래 질과 양에 있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았다.

실제로 내년이 한국이 주빈국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지한 듯 많은 외국인들이 발길을 멈춰 홍보물을 챙겨가고 '직지심경' 조각물에 관련한 설명을 듣는 등 바로 옆의 썰렁한 일본관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될 올해 주빈국인 아랍연합은 이라크전 등으로 인해 이슬람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주빈국 행사에 그쳐 조직위 관계자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아랍연합은 '미래를 향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빈국관을 소통이 불가능한 자국어 책으로 채우는 등 22개 나라 각각의 특징이 살아있는 전시를 하지 못했다.

한국관 디자인을 맡은 디자인시드 최용림 씨는 "22개국 저마다의 특징이나 개성이 안 나타나고 내용도 구태의연하다"며 "다만 단일국가의 주빈국관과 달리 아랍연합은 국가들의 연합체인 데다 비록 석유를 팔아 돈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라크 등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크게 기대하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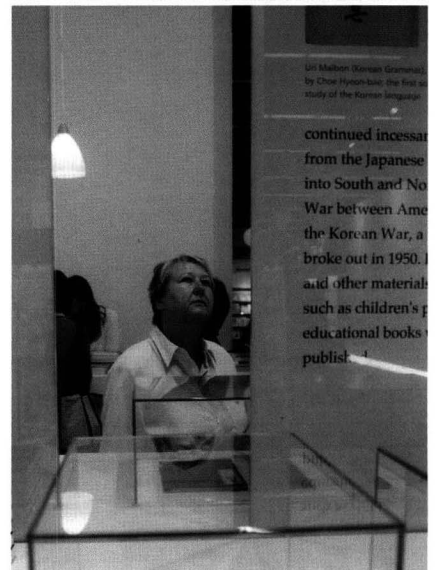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 역시 성공적 주빈국 행사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국내 언론은 최근 주빈국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는 한편, 민간기금 자원 조달과 조직위원장의 사퇴, 프로그램의 내용과 준비 현황을 둘러싼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마련한 한국관은 올해 '한국출판문화역사전' '한국의 명시전' 책을 통해 본 한국문화전, '북아트 작품 전시코너', '전자출판코너' 등을 마련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홍보관을 취재하고 있는 현지 방송사(위)와 한국출판문화역사전을 유심히 보고 있는 외국인 관람객(아래).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2005년 10월 19일)

까지 364일 남았습니다."(10월 19일 현재)

임시로 마련된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대행 박맹호 부위원장, 이하 조직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떠 있는 문구다. 지난 10월 7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열린 독일 현지에서 가진 공식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특히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주빈국 행사를 1년 앞두고 열린 '프리 주빈국 행사'란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도서전에 앞선 이강숙 조직위원장의 사퇴, 행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자금 조달 난항 등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적지 않다.





아랍연합 주빈국관. 이슬람문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대회 기간과 일정 등을 감안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조직위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이번 대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출판사는 모두 6,691개사로 2003년에 비해 0.83퍼센트 증가했고(해외참가사는 3,885에서 3,882사로 0.08퍼센트 줄었다), 입장객수는 총 27만413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474명이 줄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전시기간이 하루 줄고 금요일 20시 30분까지 시간 연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입장객은 1만1,184명(4.3퍼센트) 늘어난 셈이란 게 조직위 설명이다.

다만 전체 규모면에선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으며, 국제적인 홍보의 노력이 미흡한 듯한 인상도 남겼다. 특히 온라인 디지털 문화에 적합한 더욱 적극적인 유인 프로그램이나 아이콘의 개발이 있었더라면 한층 내실을 기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조직위원회 최선희 홍보팀장은 “전통적인 메이

저 도서전 못지않게 영국도서전, 볼로냐도서전 등 언어와 분야별로 전문적인 도서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했다. 그러나 “가장 오랜된 전통과 권위를 지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선정돼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국제 저작권 거래의 장만 갖는 게 아니라 포럼, 토론회, 발표회도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 노벨문학상 수상자들과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의 작가들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자신들의 도서를 홍보하는 등 지식의 향연을 펼치기도 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주빈국 행사를 위한 민간자금 자원 조달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며 주빈국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주빈국행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한국 명시집’. 한국의 대표시인 10인의 시를 영어로 번역해 전시했다.

비록 주빈국 행사가 ‘문화 올림픽’이라고는 하지만 그 중심엔 어디까지나 출판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은 출판인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 이를 위해 ‘비운 뒤 땅이 굳듯이’ 주빈국 행사를 계기로 출판계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후 본격적으로 기금 조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조직위와 출협은 도서전 직후 국내 모 대기업을 방문해 스폰서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해당 기업에 대해 행사 전 과정에서 독점권을 갖는 메인 스폰서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IMF 이전이라면 메인 스폰서가 가능하겠지만 요즘과 같이 기업여건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확한 기대효과 없이 큰 비용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부분적으로는 스폰서로 참가하겠다는 답을 끌어내, 말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공식기자회견 이전에 비하면 한결 상황은 좋아졌다는 후문이다.

출협 국제부 문승현 과장은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톨스토이 문학상을 제정하고 전액 지원을 하는 이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월드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도서전 주빈국 행사는 월드컵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주빈국 행사에 동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득한다면 민자 유치도 생각처럼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실제로 관계자들간엔 민간자금 모금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조직위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지나치게 거창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황지우 총감독은 "처음 총감독으로 왔을 때 105개의 전시·공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을 54개로 줄였다"며 "돈 주고 빌리는 대관이 아니라 전시·공연장은 독일측에서 준비하고 우리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동제작(co-production) 개념으로 공연·전시를 성사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황 감독은 "실제로 이미 헤센 방송에서는 중요제례악과 판소리를 자신들의 무대에 올리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다"며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기획력"이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재원조달 목표를 잡고 2002년 주빈국인 리투아니아처럼 작지만 내실 있는 행사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출판계의 공동된 기대다.

조직위원장 선임과 출판 관련 행사 소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짓고,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차기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고 조직위 구성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직위와 문광부, 출협 측은 자금동원능력을 갖추거나 문화예술계를 대표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물에게 조직위원장을 맡길 예정이다. 또 유동적이긴 하나 출판쪽 행사를 총괄하는 직책과 인사를 새로 선임, 출판계의 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출판계에서 요구했던 내용으로 주빈국 행사의 비중을 출판쪽에 두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까다롭고 어려운 숙제는 출판계의 단합"이란 게 출판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누구하나 선뜻 나서서 사람이 없어 행사 비용 가운데 출판계가 각출해야 하는 목표액 달성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이라 지적이다. 도서전 기간 중 현지에서 만난 출판사 가운데는 주빈국 행사에 별 관심이 없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도 없지 않았다. 중견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주빈국관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회의를 거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우선 조직위의 홍보 부족 탓이 크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출판계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 원인으로 꼽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 중 출판계의 '당과성' 이야말로 이러한 냉소적인 반응을 부추기고 있다는



조직위는 10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가진 기자 회견에서 내년의 준비상황을 일부 공개했다. 주빈국관 전시를 비롯, 번역·출판과 문학·심포지엄, 영화·공연예술, 전시·문화체험 이벤트, 특별 프로젝트 등 모두 53개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맹호 주빈국조직위원장 대행,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폴커 노이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 황지우 총감독, 최운 서강대 불문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지적이다. 모 출판사 대표는 "동일한 분야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의도한 바에 따라 서로 다른 단체나 집단으로 분립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선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주빈국 행사처럼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모든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주장이다.

비록 주빈국 행사가 '문화 올림픽'이라고는 하지만 그 중심엔 어디까지나 출판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은 출판인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 이를 위해 '비운 뒤 땅이 굳듯이' 주빈국 행사를 계기로 출판계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취재·사진 | 신동섭 기자